

국어
수능특강

비문학 독서 적용학습 인문 <EBS변형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 외적 원인이 아니라 ㉡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나)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의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라)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

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피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마)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떤 이론에 대해 제기된 비판들을 점검하고, 그에 대해 반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② 어떤 이론의 문제점을 상반된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절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③ 이론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하고, 유사한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④ 두 대상 간의 관계에 대한 입장의 유형을 살피고, 대상들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정리하고 있다.
 ⑤ 대상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 보편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것들을 취사선택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 본관(本貫)과 성(姓)을 가진다. 본관은 그 성의 시조가 거주했거나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던 곳의 지명을 딴 것이고, 성은 ㉠ 시조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표시하고 다른 혈통과 구분하는 역할을 해 준다. 우리나라의 본관과 성은 고려 건국 직후 중앙 정부에서 새로운 지배 질서를 마련하는 방안의 하나로 시행된 본관제에서 비롯되었다.

(나) 통일 신라 말기 골품 제도하에서 중앙 귀족들의 수탈이 심해지자 지역 향촌 사회에서 성장한 ㉡ 호족층은 자신의 지역민들과 연대하여 향촌의 공동체 질서를 재편하면서 분권적인 지방 세력으로서 힘을 키워 갔다.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중앙

의 왕권이 아직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 세력을 활용하여 향촌 사회에 대한 새로운 지배 질서를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지방 세력이 장악했던 ㉠ 호구와 토지를 조사하여 장적(藏籍)을 작성하였는데 이때 등록된 지역을 본관으로 지정하고 성씨를 주어 지역 향촌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 고려의 지방 행정 단위는 행정, 교통, 전략상의 중요성과 인구나 토지 규모에 따라 가장 큰 주현과 이에 비해 그 수는 많으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속현, 그리고 속현보다 더 작거나 고려 건국 과정에 저항했던 세력의 근거지인 향, 소, 부곡 등의 부곡 영역으로 편성하였다. 주현은 중앙 정부에서 임명하여 파견한 지방관에 의해 중앙의 통치를 직접 받았고 속현과 부곡 영역은 그러한 주현의 행정적 지휘를 받도록 하여 주현을 중심으로 한 지역 향촌 사회에 대한 자치권을 보장해 주었다.

(라) 본관제하에서는 본관의 격, 즉 본관이 주현인지 속현인지 부곡 영역인지에 따라 신분 계층의 위상이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및 부역이 달랐다. 특히 주현과 속현의 차이보다 속현과 부곡 영역의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부곡 영역이 본관인 사람들은 국립 교육 기관인 ㉡ 국학에 입학하거나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으며 관직을 갖는 데도 제한이 있었다. 또한 이들이 주현이나 속현을 본관으로 하는 사람과 혼인하여 낳은 자식들의 본관도 부곡 영역으로 귀속되었다. 그와 같은 본관의 격에 따른 차별을 이용하여 부곡 영역을 본관으로 한 인물이 공을 세운 경우 포상의 일환으로 그의 본관을 주현이나 속현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였고, 반대로 주현이나 속현을 본관으로 한 인물이 반역을 한 경우 처벌의 일환으로 그의 본관을 부곡 영역으로 강등시키기도 하였다.

(마) 주현이나 속현의 본관 지역 안에서는 신분을 정호(丁戶)와 백정(白丁)으로 구분하였다. 정호는 귀족 계층은 아니지만 주로 해당 본관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계층으로 토성(土姓) * 을 하사받아 사용하였고, 향리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전정(田丁)을 분급받아 세습하였다. 그들은 지역 내에서 실효성 있는 지배력을 가진 세력이었는데, 특히 주현의 정호는 중앙 정부에서 보낸 지방관을 보좌하면서 행정 실무를 맡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권까지 행사하기도 했으며 그들 중 상층부 일부에게는 중앙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었다. 이에 비해 백정은 세금을 부담하는 농민이나 상인에 해당하는 피지배 계층이었는데 포상에 의해 정호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신분의 차별을 특징으로 하는 본관제는 거주지 ㉢ 긴박 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거주지 긴박 정책은 관이 특별하게 허락한 경우가 아니면 본관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에 진출한 주현의 정호가 특정한 죄를 범하여 귀향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신의 본관 지역

으로 돌려보내 유배시켰다.

(바) ㉣ 주현에 파견된 지방관만으로는 지방 구석구석에 중앙 정부의 통치력이 미칠 수 없었는데, 정호가 담당한 향리에 의해 주현이 아닌 곳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자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임명한 사심관이 향촌 사회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 정부에 전달하거나 본관에 토착해 있는 지방 지배층과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갈등을 빚을 경우 그것을 조정하도록 하는 사심관 제도가 운영되었다.

(사) 건국 초기를 지나 12세기에 접어들어 고려는 왕권 강화와 지배 체제 정비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늘면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과 부역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부담이 속현이나 부곡 영역에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체제에서 그곳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본관을 버리고 주현으로 가거나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게 되어 본관제를 통한 지배 방식은 해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본관제는 이후에 노비를 제외한 일반 양인들이 오늘날과 같이 성씨와 본관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2. 윗글과 비교하여 <보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디지털 노마드는 정보 통신의 발달과 함께 거주지에 구애 받지 않고 업무를 하는 부류를 말한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자신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지역을 찾거나 여행을 하며 업무를 처리한다.

- ① 오늘날의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전통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 ② 종족 집단은 타자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화적 특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 ③ 현대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현지에 동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 ④ 사람의 거주에 대한 정체성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이해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선택될 수 있다.
- ⑤ 현대의 세계화는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본과 사람들의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흔히 선물을 준다는 것이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물적 증여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인류학자 모스는 원시 부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선물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선물을 준다는 것은 단순한 물적 증여가 아닌 ㉠ 총체적 증여라고 보았다.

(나) 총체적 증여는 증여가 근본적으로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 전제한다.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 급부의 관념이 아니며, 오로지 유익함하고만 관계가 있는 생산과 교환의 관념도 아니라는 것이다. 모스는 증여란 신화적이며 사회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인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선물 교환이라고 말하였다.

(다) 모스는 선물에는 집단이 인정하는 신화적 표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증여란 물적인 차원의 것을 넘어 ㉣ 주술적 차원의 것임을 강조한다. 원시 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는 선물에는 혼, 즉 신화적 상상력에 근거한 주술적 상징이 담겨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트로브리안드 섬의 조개 목걸이나 조개 팔찌, 북서부 아메리카 인디언의 구리 방패 등으로부터 선물의 영적 속성을 찾아내고 있다. 이들 원시 부족이 선물을 교환할 때 외우는 주문 속에는 ‘조개 목걸이와 조개 팔찌는 사람의 소리에 맞추어 뛰노는 개처럼 사람과 함께 어울린다.’, ‘구리 방패가 말을 걸고 투덜거린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그는 선물로 증여되는 것이 선물을 증여하는 사람과 합일의 관계를 맺고 있어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물 교환이란 영적 관계를 ㉤ 수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라) 혼을 가지고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선물이 주술적 표상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스는 주술적 표상이 형성되는 원리를 ㉥ , 유사법칙, 대립법칙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접촉을 한 사물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체성이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연속법칙에 따른 것이다. 유사법칙은 모방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만들어 내며,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립법칙은 어떠한 대상에 대립하는 것이나 어떤 성질에 반대되는 것이 그것을 물리치거나 방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모스는 이러한 원리가 선물의 주술적 ㉦ 표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고 하면서, 어떠한 표상이 형성되는 것은 개인의 독자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선물의 주술적 표상은 신화적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 표상이다.

(마) 모스는 영적 관계를 맺는 방식인 선물 교환을 상호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데, 그 근거는 선물 교환이 총체적 증여의 성격을 바탕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구속한다는 데에 있다. 증여자의 영적 힘이 담김으로써 영적 성격을 갖게 된 선물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주술적인 힘을 행사하게 된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주술적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증여자에게 되돌려 주거나 받은 선물에 대한 대체물로 증여자에게 이 힘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선물 교환은 주술적 힘에 의해 상호적으로 규정받게 되고, 이를 통해 ㉧ .

(바) 총체적 증여로서 선물 교환을 규정하는 모스의 입장에서 보면, 물적 가치로만 선물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풍토의 확산은 선물 증여의 다차원적인 성격이 소멸되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모스의 선물 교환에 대한 논의가 실용 논리로 말미암아 메말라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 해소에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모스는 증여가 증여 받은 사람에게 의무임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증여에 대한 모스의 견해는 통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③ 모스는 증여란 주술적 차원의 것임을 강조한다.
- ④ 인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선물 교환이다.
- ⑤ 모스는 증여된 물건과 증여자의 정신이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인식 대상에 대한 내용이 ㉠ 선협적으로 ㉡ 구비됨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식의 출발은 오직 경험에 의존함을 주장했다. 그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란 바로 한 덩어리의 신기(神氣) *와 기의 통로가 되는 눈, 코, 입 등과 사지(四肢)이니, 갖추어 사용하는 것은 이것들뿐이요, 다시 별도로 다른 것에서 얻어 온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며 몸바깥의 사물을 인식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공부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다는 전통 성리학의 본유관념(本有觀念)을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은 전통 성리학에서는 물론 중국 유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나) 종래의 성리학의 이기론과 심성론을 바탕으로 한 인간 이해는 인간의 도덕적 근거에 대해 형이상학적으로 정의를 내림으로써 인간 내면의 심(心)을 탐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학(理學)과 심학(心學)에 대한 최한기의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비판의 초점은 만물내재(萬物內在) 관념의 부정에 맞추어져 있다. 최한기는 경험 이전의 대상 세계의 이치가 본성에 내재해 있다는 선협론을 부정한다. 최한기는 인간의 본성이 선협적 본성으로 물들어 있지 않은 텅 빈 거울과도 같다고 보았으며, 경험을 통하지 않은 어떠한 인식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식의 목적을 본성의 자각과 인성의 ㉠ 도야에 두고 있는 기존의 심성론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도가나 불가와 같이 경험을 벗어난 일체의 세계를 숭앙하는 모든 사상과 종교를 비판했다. 그는 인간 내면에 모아졌던 관심의 시선을 인간 외부로 돌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낱알이 알고자 했다.

(다) 최한기의 인식론을 살펴보면 우선 인식을 주관하는 '신기'와 인식 자료라 할 수 있는 인식 대상으로서의 자연, 그리고 신기와 인식 대상을 이어 주는 매개 역할로서 '제규제촉(諸窺諸觸)'이 인식의 세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신기란 모든 존재의 근원인 기(氣)로서 만물에 부여되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제규제촉은 눈, 코, 입, 귀 등 인체의 아홉 구멍과 온몸의 촉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기관을 가리킨다. 신기에 의한 인식 작용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감각 기관을 통해 인식 대상으로부터 경험적 자료들을 수용하여 신기에 습염(翫染) * 되는 과정, 두 번째로 신기에 습염된 자료들을 미루어 헤아려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두 과정을 거쳐 형성된 지식을 다시 외부 세계에 적용해 ㉡ 증험(證驗)하는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최한기는 인식 대상이 감각 기관을 통해 경험적으로 수용되면서 인식 주체인 신기에 습염되는 현상을 첫 번째 단계인 경험의 범주에 넣어 형질지통(形質之通)이라 하였다. 그리고 신기에 물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대상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 내는 작용을 두 번째 단계인 추측의 범주에 넣어 추측지통(推測之通)이라 하였다. 그런데 최한기의 인식론에서 경험은 순수한 자기 경험의 집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한기는 옛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도 수용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독서나 그 밖의 활동을 통해 동시대 내지 전 시대의 경험과 관념을 교환 또는 계승함으로써 인식의 진보가 가능함을 주장한 것이다.

(마) 그런데 최한기에게 인식 과정은 추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 내면에 ㉢ 본유(本有)하는 어떠한 선협적 절대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최한기의 입장에서 볼 때 추측의 과정은 항상 주관적으로 흐를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판단의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추측에는

반드시 증험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추측지통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인 추측지리(推測之理)가 유행지리(流行之理)에 일치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증험의 기준이 되는 유행지리는 사물의 객관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유행지리에 부합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증험의 방법은 추측의 과정을 역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감각 기관을 통해 수용된 인식 자료들을 가지고 추측이 이루어졌듯이, 증험은 추측의 결과를 외부 사물에 적용하여 그 결과가 유행지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물(物)을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라는 것인데, 추측이 나의 신기로 외부 사물을 경험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을 헤아리는 것이라면 증험은 거꾸로 그와 같이 추측한 바를 다시 외부 사물에 적용해 봄으로써 나의 추측이 옳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 * 신기 : 정신과 기운.
- * 습염 : 물들이는, 기억하는.

4. 윗글을 바탕으로 '인식'의 특징을 추리한 내용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ㄱ. 추측지통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린 것이다.
- ㄴ. 인식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 ㄷ. 만물내재의 관념은 객관적 사물 현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ㄹ. 인식은 사물 현상의 본질적인 속성을 드러낸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 ④ ㄴ, ㄷ ⑤ ㄴ, ㄹ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영국의 정치 철학자 홉스는 인간의 자연권 * 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한정된 ㉠ 재화로 인해 보전될 수 없을 만큼의 투쟁 상태를 자연 상태로 보았다. 그래서 개인은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안전과 평화에 이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게 되고, 그 결과로 각 개인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전부 ㉢ 양도하고, 그 권리를 양도받는 존재는 그 힘으로써 강력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사회 계약을 맺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 계약을 통해 강력한 ㉣ 주권을 행사하는 존재가 '리바이어던', 즉 ㉤ 국가라고 하였다.

(나)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국가, 곧 정치체를 '인공 인간'으로 묘사하였다. 홉스에 따르면, 이 인공 인간은 개인을 자연 상태에서부터 보호하고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인보다 몸집이 훨씬 크

고 힘이 세다. 국가의 주권은 인공 인간의 전신에 생명과 운동을 부여하는 ‘영혼’이고, 각 부 장관과 관리는 ‘관절’에 해당한다. 상벌은 인공 인간의 모든 관절과 사지를 주권자와 연결시켜 그 의무의 수행을 위해 움직이도록 하는 ‘신경’이다. 또한 구성원 개개인 모두의 부와 재산은 인공 인간의 ‘체력’에 해당하고, 조연자들은 인공 인간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제안하기 때문에 그의 ‘기억’에 해당한다.

(다) 홉스에게 정치체, 즉 인공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권이다. 홉스는 주권이 정치체를 작동시키는 인공적 영혼이라고 보았는데 여기서 주권을 두뇌가 아니라 영혼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두뇌는 단지 신체의 일부일 뿐 그것의 작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고, 사회 계약을 통해 개개인의 일반 의지를 묶은 하나의 단일 의지이자 인공 인간을 작동시키는 핵심으로서 국가의 주권은 인간의 영혼에 대응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 주권이 사라지게 되면 개개인은 다시 각각의 자연 상태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정치체가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라) 이와 같은 홉스의 정치체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중심성’이다. 홉스는 청교도 혁명으로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무질서한 상태를 종식시킬 신과 같은 절대적 권위가 필요하고, 그 절대적 권위는 개인들이 양도를 통해 대리인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부여받은 그 권위를 무제한으로 휘두를 수 있다고 보았다. 홉스는 이렇게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통치 권위를 양도받은 대리인이 곧 근대 국가라고 보았다. 이때 중심성은 국가라는 정치체를 움직이게 하는 중심 원동력이 군주의 절대적이고 막강한 주권이며, 개인은 그 권위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홉스는 군주의 이와 같은 주권이 군주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이라기보다는 자연 상태의 개개인들 간의 사회적 계약을 통해 양도받은 권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마) 『리바이어던』에서 언급된 인공 인간은 홉스 철학의 핵심으로 이전의 정치체 논의에서 정치 공동체를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비유하여 마치 생명체와 같은 조화로운 ㉠ 유기체로서의 특징을 강조하던 방식과는 달랐다. 홉스가 정치체를 인공 인간으로 비유한 것은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권이 기계적으로 보장되는 ‘자동성’과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동성은 개인들의 ㉡ 일반 의지가 모여 분할할 수 없는 단일 의지가 된 주권이 인공 인간의 신체에 내재된 시스템에 따라 작동하여 저절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 영속성은 이전의 군주권이 단순히 군주 개인이 통치하는 왕권이기에 군주가 죽으면 함께 사멸해 버리는 것과 달리, 인공 인간은 사회 구성원의 죽음과는 무관하게 그 내재 원리에 따라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 홉스의 이론은 절대 권력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절대 왕권의 통치 방식을 정당화하는 중세적인 사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자유 의지를 가진 개인들이 상호 간의 안전과 평화를 염두에 두고 근대적 주권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장치로서 ‘사회 계약’의 개념을 고안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를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체로 인식했다는 데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 자연권 :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로 자기 보존이나 자유, 평등의 권리 등.

5.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 : ㉢ 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전화 : 통신
- ② 산업 : 상업
- ③ 바퀴 : 자동차
- ④ 가뭄 : 저수지
- ⑤ 산업화 : 인간 소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철학적 물음을 ‘개인 동일성’ 문제라고 한다. 개인 동일성에 대한 가장 손쉬운 대답은 영혼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영혼 이론이다. 여기서 영혼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을 그런 존재를 말한다. 그러나 초자연적 영혼은 있는지 보여 줄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래서 개인 동일성 문제를 해명하는 이론으로는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이 유력하게 제시되어 왔다. 신체 이론은 외모를 비롯한 신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 심리 이론은 생각이나 기억, 버릇, 성격 따위의 심리 상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나)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은 오래된 철학의 문제인 개인 동일성 문제에 대해 ㉡ 유력한 이론들이었지만 과학의 발달로 생길 수 있는 복제의 문제에 부딪힌다. 과학 기술이 발전한 미래에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 보자. 내가 서울에 있는 공간 이동 전송기 안에 들어가면 나의 몸을 고통 없이 원자 단위로 분해하여 그 원자들의 정보를 기록 장치에 저장한 다음에 그 정보를 뉴욕으로 보내어 나의 몸을 만들어 낸다. 서울의 나와 뉴욕의 내가 신체에서나 심리 상태에서 차이가 없다면 나는 공간 이동을 했어도 동일한 개인일 것이다.

(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이번

에는 똑같이 뉴욕으로 가는 공간 이동 전송기에 들어 갔는데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서울에도 내가 그대로 남았는데 뉴욕에도 내가 만들어졌다고 해 보자. 나의 복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문제는 뉴욕의 복제된 내가 서울에 있는 나와 신체로 보나 심리 상태로 보나 동일하다는 데 있다. 동시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내가 찬 시계가 친구가 찬 시계와 동일하다고 말하는 의미에서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개인 동일성에서 말하는 동일성은 수적으로 하나라는 의미이므로 서로 다른 두 곳에 동시에 동일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신체든 심리든 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아니라고 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라) 개인 동일성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은 여기서 조건을 달아 위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복제 불가 조건'이라고 부르는 조건은 복제로 인해 본디의 사람과 복제된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동일성을 ㉞ 고려할 때 ㉟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제가 있다면 어느 누구도 동일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공간 이동의 첫 번째 사례와 달리 두 번째 사례에서는 복제가 일어났으므로,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뉴욕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나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

(마) 복제 불가 조건에 의한 해결책은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동시에 동일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나 뭔가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번에는 공간 이동 후 서울에도 내가 남아 있고 뉴욕에도 내가 남아 있는데, 서울에 있는 내가 공간 이동 직후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 해 보자.

㉠ 사람들은 뉴욕에 있는 나를 나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례에서 뉴욕에 있는 나와 두 번째 사례에서 뉴욕에 있는 나(로 추정되는 사람)를 비교해 보자. 그 둘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한번은 나와 동일하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한 번은 인정받는 일이 생긴다. 이것은 나의 동일성이 다른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달려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개인 동일성의 본질은 나와 관련된 특정한 사실이나 나의 다양한 단계 사이의 관계에만 의존해야 하지,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적 상황과는 무관하다. 개인 동일성에 복제 불가 조건을 달게 되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동일하냐고 물을 때, 나로 추정되는 그 어떤 경쟁자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바) 서울에 있는 내가 뉴욕에 있는 나보다 더 진짜 '나'라는 ㉡ 직관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서울의 나는 애초부터 있었지만 뉴욕의 나는 거기서 복제되어 생겼기 때문이다. 고전 소설 「옹고집전」에서 옹고집과 똑같은 옹고집이 더 만들어져서 본디의 옹고집처럼 행동하면 본

디부터 있던 옹고집이 더 억울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러나 '나'의 신체나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데 원래부터 있었느냐 복제되어 생겼느냐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다. 더구나 이런 생각 역시 복제 불가 조건이 갖는 문제점처럼 나의 경쟁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의 동일성이 결정되는 문제를 갖는다.

(사) 서울 외에 뉴욕에 나로 ㉢ 추정되는 사람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둘은 각자의 삶을 살 것이므로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누가 진짜 나인지 확정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누가 가져야 할까? 혹시 과거에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처벌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 복제와 공간 이동은 현재 가능한 기술은 아니지만, 그것이 과학자들에 의해 법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증되지 않은 이상 언젠가는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인 동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권리와 책임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6.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다음의 물음을 해결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원불멸의 영혼은 존재하는가?
- ② 현재의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는 일이 가능한가?
- ③ 개인의 동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조건은 무엇인가?
- ④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보편타당한 기준은 무엇인가?
- ⑤ 절대적인 개인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정립하는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종교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종교의 역사적, 유형적 측면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관련 연구에 점차적으로 사회학 이론이 도입되면서 종교 조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당시 사회학계를 풍미하던 파슨스의 기능 이론이 종교 연구에 도입되었다. 파슨스는 모든 사회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능적 필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파슨스의 이론이 일종의 사회 조직인 종교 조직을 연구하는 데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나) 파슨스는 모든 사회 조직이, 유기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 적응(A)', '목표 달성(G)', '통합(I)', '잠재성(L)'의 4가지 기능적 필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적응'은 사회 조직이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 외부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이 지속적으로 조달되어 조직 내에서 적절히 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목표 달성'은 사회 조직이 조직 내의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적응'의 과정을 통해 조달된 자원들을 동원하여 정해진 목

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통합'은 사회 조직 내의 각 체계가 잘 통제되고 안정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 조직 내 구성원들이 협동과 유대를 통해 조직 내적으로 형성된 제도나 질서를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잠재성'은 사회 조직 내의 고유하고 문화적인 가치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화(動機化) *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직의 가치를 유지해 가는 것이 모두 잠재성에 해당된다.

(다) 이러한 파슨스의 기능적 필수 요건은 종교 조직에 적용되어 종교 조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우선 적응은 종교 조직에서 주로 신도 모집으로 이해되었다. 종교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인적 자원의 조달이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 조직은 비신자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제시하고 그들이 종교 조직에 참여하도록 하는 선교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에는 종교 조직에서도 세속적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하기도 하며, 이와 관련한 종교 조직 간의 상호 경쟁이 더욱 복잡해지기도 한다.

(라) 다음으로 목표 달성은 종교 조직에서 흔히 신도 교육과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종교 조직은 오래 전부터 설정되어 왔던 종교적 신념과 목표를 신도들에게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리 * 교육과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종교 조직이 오랜 시간 유지되다 보면 본래의 단순했던 종교적 목표가 분화되거나 추가되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목표가 종교 조직의 본래 목표와 멀어지거나 본래의 종교적 목표를 대신하는 목표 ㉠ 전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 신에 대한 독실한 신앙을 얻고 보람된 삶을 살고자 모였지만 실제로는 종교 외적인 세속적 문제에 휩쓸리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결국 종교 조직들은 부단히 신도들에게 목표 의식을 강조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본래의 목표에서는 다소 벗어난 것이지만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신도들을 교육하거나 훈련시키기도 한다.

(마) 세 번째, 통합은 종교 조직에서 주로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나타난다. 즉 ㉢ 상이한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종교 조직은 구성원 간에 갈등이 없는 ㉣ 일사불란함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도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해져야 하고 그 역할들이 일정한 형식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종교 조직에서는 역할 분담을 위해 ㉤ 경전 편집, 교리화, 제의화 등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것들은 종교 조직 내부의 권위 체계에 의해 특정한 직책으로 제도화된다.

(바) 끝으로 잠재성은 종교 조직에서 흔히 동기화로 이해된다. 종교 조직은 무엇보다도 ㉥ 제례, 의식, 기도 등을

통한 해당 종교의 창시자나 신에 대한 근본적인 종교 경험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 경험이 새롭게 해석되거나 현실에서 다시 체험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신도들이 일상적 세속 생활과 성스러운 종교 생활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살아가게 하는 다양한 형식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일상생활을 과감히 무시하고 영적 생활과 명상 등을 강조할 수도 있으며 세속적 일상생활 자체를 성스러운 표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신도들이 종교 조직 안에 존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 부여가 필수적인 것이다.

(사) 결국 종교 조직 역시 파슨스가 주장했던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잠재성의 네 가지 기능적 필수 요건이 종교 조직의 내외부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원활하게 수행될 때 사회 속에서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동기화 : 동기 부여.

* 교리 :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

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종교와 신앙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종교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종교가 취할 수 있는 특정한 경향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 ④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종교의 특성을 해명하고 있다.
- ⑤ 시대에 따라 종교의 기능이 변화해 온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딜레마 논증은 토론에서 상대방이 피하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논증 형식이다. p와 q가 진술이라고 할 때 딜레마 논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다.

(나) p이거나 q이다.

만약 p라면 r이다.

만약 q라면 r이다.

따라서 r이다.

p를 선택하든 q를 선택하든 r이라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라고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면 딜레마 논증도 실패하고 만다. 위 논증은 첫 번째 전제인 “p이거나 q이다.”에서 p와 q가 모순 관계여야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되는데, 만약 p와 q가 반대 관계여서 p도 아니고 q도 아니게 된다면 상대방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다)어떤 두 진술 사이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옳으면 다른 진술이 그를 수밖에 없고, 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그르면 다른 진술이 옳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아래에 짝을 이루고 있는 두 진술은 모순 관계이다.

㉠ “지금 이곳에 비가 오고 있다.”-㉡ “지금 이곳에 비가 오고 있지 않다.”

(라) 일반적으로 어떤 진술 “p”와 그것의 부정 “p가 아니다.”라는 진술은 모순 관계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p이거나 p가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진술은 반드시 옳은 진술이다. 이러한 진술 형식을 배중률이라 한다. 또한 “어떤 것이든 p이면서 p가 아닌 것일 수 없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진술도 반드시 옳은 진술인데, 이러한 진술 형식을 무모순율이라 한다. 배중률은 모든 진술이 옳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는 원리를, 무모순율은 옳으면서 동시에 그른 진술은 없다는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배중률과 무모순율은 “p는 p이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동일률과 함께 고대로부터 ‘사고의 기본 법칙’으로 일컬어진다. 사고의 기본 법칙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합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모순에 휘말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이것들은 사고의 논리적 토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진술에 전제된 원리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한편 어떤 두 진술 사이에는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그를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 두 진술 사이의 관계를 ‘㉢ 반대 관계’라고 한다. 다음의 진술들은 반대 관계에 있다.

“지금 이곳의 날씨는 춥다.”-“지금 이곳의 날씨는 덥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날씨가 추우면서 덥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적당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위 두 진술은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그를 수 있다.

(바)지금까지 설명한 진술들 사이의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흑백 사고의 오류도 그중 하나인데, 이것은 사실은 반대 관계의 두 진술을 모순 관계의 두 진술인 것으로 혼동하는 잘못이다. 가령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은 모든 정치적 논쟁에서 옳고, 상대방 정당은 항상 그르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X는 전적으로 좋다.”라는 진술은 “X는 전적으로 나쁘다.”라는 진술과 반대 관계를 이루는 진술이다. 흑백 사고의 오류는 이 두 진술이 둘 다 그를 수 없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이다.

(사)진술들 사이의 ㉣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의 차이를

아는 것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딜레마 논증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이 ㉣ 차이를 이용해서 딜레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 ’라고 말한다.

8.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진술이 그 기원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 ② 어떤 진술의 원인을 잘못 간주하는 것.
- ③ 전체의 속성을 부분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 ④ 두 개의 판단 사이에 끼어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
- ⑤ 일반화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대학생 갑은 시험 전날 우연히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 밤새 이야기를 하다가 졸린 상태에서 시험을 보았고, 대학생 을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두 사람 모두 C라는 학점을 받았다고 해 보자. 이때 갑과 을은 C라는 성적 결과를 보고 ‘내가 ~했다면, ~했을 텐데’ 또는 ‘~하지 않았다면, ~했을 텐데’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는,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 대안적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한다. 사후 가정 사고는 ‘~했다면’ 또는 ‘~하지 않았다면’에 해당하는 조건 부분과 ‘~했을 텐데’ 또는 ‘~할 뻔했다’라는 결과 부분으로 구성되는 조건문의 형태를 가진다. 조건 부분에서는 특정 선행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결과 부분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나) 사후 가정 사고는 조건 부분의 전환 구조에 따라서 ‘㉣ 추가형’과 ‘삭제형’ 사후 가정 사고로, 결과 부분의 전환 방향에 따라서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와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추가형은 사실을 가상의 상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마치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추가하는 것이고, 삭제형은 일어난 사건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 내는 사후 가정 사고이다. 한편 일어난 사건보다 더 나은 대안적 사건을 결과로 가상하는 것을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하고, 더 나쁜 대안적 사건을 결과로 가상하는 것을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한다. 부정적 결과를 경험했을 때는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가, 긍정적 결과를 경험했을 때는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가 많이 나타난다.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는 현실의 사실적 사건보다 더 못한 가상의 사건을 상상하여 대조 효과로 인해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

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나은 대안의 결과를 상상하는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를 더 많이 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다) 사후 가정 사고는 그것이 일단 ⑥ 유발된 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구성된다. 사후 가정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 []와 ㉡ []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동기는 사후 가정 사고의 결과 부분과 관련되는데, 동기와 관련되는 세부 요인은 다양하다. 어떤 결과에 대해 기대가 클수록, 결과가 부정적일수록, 결과에 대해 개인이 개입한 정도가 클수록 사후 가정 사고에의 동기가 커지고 유발 정도가 높아진다.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이 높을 때에도 실제 사건의 전환성이 높게 지각되어 유발 정도가 높아지는데,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은 현실에서 일어난 사실적 사건이 대안적 사건과 가까운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행기 이륙 시간보다 단지 1분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를 놓쳤을 때가 2시간 늦게 도착해서 놓쳤을 때보다 비행기를 놓친 사실적 사건과 놓치지 않은 대안적 사건이 더 가깝기 때문에 사후 가정 사고가 쉽게 유발된다. 또한 사실적 사건이 자신의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치되었을 때 사후 가정 사고가 유발되기 쉽다.

(라) 사후 가정 사고의 조건 부분과 관련되는 선행 사건의 변화 가능성은 선행 사건의 반대 상태 또는 바람직한 대안을 ㉢ 인지적으로 가정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 정도를 나타낸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선행 사건은 보통 다수인데,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보다는 비정상적이고 평상시와 다른 예외적인 사건이 전환하기 더 쉽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후 가정 사고가 더 쉽게 유발되고, 예외적인 것이나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들을 변화시켜 사후 가정 사고의 조건 부분의 구체적 내용을 이룬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평소와 같은 길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비해 평소와 다른 길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사후 가정 사고가 일어나기 쉽고, 이때 ‘평소와 같은 길을 이용했다면’이라는 조건 부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마) 이러한 사후 가정 사고는 정서적 반응의 변화를 유발한다. 사람들은 선행 사건과 부정적 결과의 인과 관계를 강조해 그 선행 사건에 더 강한 책임이나 처벌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선행 사건을 변화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변화시킨 선행 사건이 실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인과 추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어난 결과와 비교되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은 달라진다.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는 슬픔, 후회 등의 나쁜 감정들을 완화시키고 기쁨, 만족, 안도 등의 좋은 감정들을 증대시키는 반면,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는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사후 가정 사고는 어떤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

은 어떤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그 사건이 쉽게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희생자에 비해 더 큰 동정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외적인 행동을 하여 어떤 사건의 희생자가 된 경우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의 정서는 그 사람이 예외적인 행동을 한 이유가 ㉣ 내재적인지 외재적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예외적인 행동을 하여 희생자가 된 사람의 행동 이유가 그 행동을 한 사람의 내부에 있는가 혹은 외부에 있는가는 다른 사람들의 동정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사후 가정 사고는 인과 ㉤ 추론을 통해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사회적 판단이나 의사 결정에도 관련되어 있다.

9.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사후 가정 사고의 개념 및 구조
- ② [나] : 사후 가정 사고의 구조에 따른 종류
- ③ [다] : 사후 가정 사고의 동기 부분과 관련된 요인
- ④ [라] : 사후 가정 사고의 조건 부분과 관련된 요인
- ⑤ [마] : 사후 가정 사고에 의한 정서적 반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는 원칙은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윤리적 ㉠ 정설이다.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을 적어도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평등이라는 원칙의 윤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나) 인간은 인종이나 성별과 관련 없이 모두 평등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까닭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결코 경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주위를 보면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으며,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은 덧셈도 거의 못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존재를 일부러 해치는 일이 전혀 없는데 비해 단돈 몇만 원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이도 있다. 인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평등의 원칙을 세울 사실적 근거를 찾는 일은 가망 없어 보인다.

(다) 철학자 롤스는 우리가 ‘영역 속성’을 받아들인다면 평등을 인간의 객관적인 사실적 특성에 기초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이 위에 그려진 원 안이 ‘영역’인데, 영역 안의 모든 점은 그 원 안의 존재라는 특성을 똑같이 가진다. 어떤 점들은 중심에 더 가깝고 다른 점들은 주변에 더 가깝지만, 모두 똑같이 원 내부의 점이다. 롤

스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인격’이라는 특성도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이며, 그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은 모두 이것을 똑같은 정도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롤스의 ‘도덕적 인격’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덕적 인격’이라는 말은 도덕적 호소가 가능한 인간, 그러한 호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종류의 인간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롤스는 ‘도덕적’이라는 말을 ‘도덕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도덕과 무관한’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뜻이다.

(라) 그러나 철학자 싱어는 도덕적 인격을 평등의 근거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일단 도덕적 인격을 갖는다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정의와 윤리의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하지만, 그런 원칙들에 대해 제한된 인식만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이다. 싱어에 따르면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 내에 들어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된다는 주장은, 이러한 최소한의 선이 어디에 그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남겨 놓고 있다. 만약 도덕적 인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각자의 정의감에 민감한 정도에 상응해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도덕적 ⑥ 위계를 갖지 말아야 할 이유 또한 직관적으로 명백하지가 않은 것이다.

(마) 더 심각한 반론은 모든 인간이 도덕적 인간이라는 주장은 최소한의 의미에서조차도 참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아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 인격이 ⑦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아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과 어긋난다. 그래서 싱어는 롤스의 생각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원칙의 근거를 만족스럽게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어떤 사실적 특성도 그런 근거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소유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특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 싱어는 평등은 기본적인 윤리의 원칙이지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런 윤리 원칙을 찾기 위해 윤리의 보편적인 관점에 주목한다. 윤리는 보편적인 관점을 취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할 때 개인적이고 ⑧ 당파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판단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뜻한다. 우리가 이익을 측정할 때, 이익을 단순히 이익 그 자체로 고려해야지, 나의 이익이나 백인의 이익이나 지능 지수가 100 이상인 사람의 이익으로 따로 고려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다. 싱어는 이것을 이익에 대한 평등한 고려를 요구하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⑨

(사) 이 원칙의 본질은 우리가 도덕적 사고에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같은 이익들에 대하여 동등한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설혹 우리가 X보다 Y에게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행위에 의해 X가 잃게 될 것이 Y가 얻게 될 것보다 더 많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예를 들어 보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 궁극적인 도덕적 이유는 단순히 고통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 바람직하지 못한 고통이 Y의 것이 아니라 X의 것이기 때문은 아니다. 물론 X의 고통이 Y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X의 고통이 Y의 고통보다 더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 원칙은 X의 고통 해소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다.

(아)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양팔 저울처럼 작동해서 이익을 공평하게 측정한다. 저울의 접시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다면 이익이 없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무엇인가가 측정이 된다면 제대로 된 저울은 이익보다 강한 쪽으로, 또 비슷한 이익이라면 소수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나 자신이 재고 있는 이익이 누구의 이익인가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종이나 성별은 이익을 고려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떤 특정한 양의 고통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특정한 인종이 겪는 고통이라고 해서 고려를 덜 한다면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익을 가진다는 특성만을 고려해야지 그 외에 능력이나 어떤 다른 특성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 예컨대 지능 지수가 낮은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것은 평등한 고려와 ⑩ 양립할 수 없는데, 지능은 고통을 피하고 타인들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자유로이 추구하는 이익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롤스의 ‘도덕적 인격’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② 롤스는 ‘도덕적’이라는 말을 “도덕과 무관한”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뜻으로 썼다.
- ③ 싱어는 롤스의 도덕적 인격의 범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④ 롤스의 평등에 대한 근거는 도덕적 인격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대해 올바른 설명을 할 수 없다.
- ⑤ 평등 고려의 원칙은 이익을 측정할 때 자신이 재고 있는 이익의 당사자를 고려한다.

정답 및 해설

1) <답> ①

2) <답> ④

보기와 지문의 후반부 내용을 모두 반영한 것은 4번이다. 5번은 보기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3) <답> ②

모스는 통념(지문의 첫 문장)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4) <답> ①

5) <답> ④

‘자연 상태’는 문제 상황을, ‘국가’는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책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가뭄’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를 건설한다.

6) <답> ③

3번은 지문의 중심 내용이다.

7) <답> ②

파슨스의 견해를 종교에 적용하고 있다.

8) <답> ④

9) <답> ③

다 단락은 사후 가정 사고의 결과 부분과 관련된 요인이다.

10) <답> ⑤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익을 썰 때에는 누구의 이익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